

2008. 7 창간호

함께 나누는 삶

반려동물문화캠페인

이름표는 생명줄입니다

입양해주세요

강이의 가족찾기

기획 연재 고양이 TNR _ 1

삼색이에 대한 기억

Animal Photography

사진으로 보는 농장동물

Live on vegetables

까다롭지 않은 채식

특집

핵심정리! 동물보호법



CONTENTS

- 1 인사말 | '함께 나누는 삶'을 창간하며...
- 2 HISTORY | 동물자유연대 · (사)한국동물복지협회 9년의 주요 발자취
- 4 견생역전 | 메리네 놀러 오세요!
- 6 반려동물문화캠페인_1 | 이름표는 생명줄입니다.
- 7 입양해주세요 | 강이의 가족찾기
- 8 이럴땐 어떡해요 | 아파트에서 개를 못키우게 해요
- 9 기획 리포트 | 삼색이에 대한 기억과 서울시의 고양이 TNR정책
- 10 Animal Photography | 사진으로 보는 농장동물
- 12 Animal Watch | BSE(광우병)의 예방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대항
- 14 세상읽기 | 생명에 경중이 있을까요?
- 16 Live on vegetables | 까다롭지 않은 채식
- 18 특집 | 핵심정리! 동물보호법
- 20 활동소식 | 2008년 1월 ~ 5월
- 23 활동가 소개 | 이지영 간사 / 편집후기
- 24 후원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삶’을 창간하며...



조희경 | 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우리 단체가 활동을 시작한지 9년이 되어서야 간행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동물에 대한 관심이 더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함께 나누는 삶’ 창간호를 출간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보호”란 것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염원과 노력들이 모여 15년 만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나아가야 하는 과제로 우리에게 남겨지기는 하였지만, 기존의 선연적 의미만 있었던 내용에서 한발 나아가 보다 실효성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앞으로 동물보호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물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 올해 봄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814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의 가금류들이 산 채로 매장 당하는 참혹한 일로 귀결되었으며,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 사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광우병을 염려하는 국민들의 뜻이 촛불문화제로 결집되었습니다. 이렇듯 동물복지는 단지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EU를 비롯해 국제 사회에서는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농장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나라 안팎의 여건들을 볼 때 우리나라도 동물복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최근 영국의회는 이종 간 배아연구를 허용해 인간과 동물의 조직이 접목된 생물체인 키메라(chimera)탄생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 나라마다 생명공학의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안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을 받으며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은 그 재앙 역시 인간들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닥칠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생명공학의 윤리성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이 동물실험에 대한 정당성과 윤리성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우리 동물단체에게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과 목표가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 더욱욱 공고해지는 계기를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나가는 일, ‘함께 나누는 삶’이 여러분들과 이웃, 우리 사회를 한데 묶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❷

동물자유연대 · (사)한국동물복지협회

9년의 주요 발자취

비영리법인 설립, 공익법인 지정 _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 우리 단체의 법인 명칭을 한국동물복지협회로하여 동물보호법 주관 부서인 농림부 승인.(2003)

-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익성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2007)



반려동물복지 활동

1. 국내 최초로 동물입양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

- 우리나라의 인터넷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온라인을 통해 유기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들의 실상을 폭로

- 동물에 대한 연민 의식과 '동물 입양' 용어 보급 및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

2. 유기동물 · 피학대동물 보호 관리 및 예방 캠페인

3. 입양동물의 날 행사 :

입양동물의 사후 점검 및 양육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캠페인 연중행사

4. 개 도살 금지 캠페인



농장동물복지

1. 농장동물복지 연구조사 및 캠페인 :

보고서 발간, KBS 환경스페셜 동물공장 2부작 제작 협력

2. 풀무원 · 을가 동물복지축산제품 인증 Label 자문협약

실험동물복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및 파견 · 실험동물의 인도적 이용을 위한 동물실험윤리 평가 위원회

오락동물 반대

1. 소싸움 경기 : 동물보호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만 한정토록 함
2. 경견법 입법 저지 : 그레이하운드경주 사행(도박)산업화 시도 감시 및 저지를 위한 활동
3. 동물원 동물복지 및 동물쇼 감시



교육 및 포럼

1. 어린이 동물보호교육 시행(2005년~)
2. 반려동물복지 국제컨퍼런스 개최(2005)
3. 농장동물복지 포럼(2007)
4. 동물보호법과 개 식용(2008)



법률 및 정책 제언 활동

1. 동물보호법 개정 : 동물보호법 추진 위원회
2.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관리 관련 정책 자문 및 정책 제언



동물인형극

유기동물방지 및 바른 반려동물문화·개식용반대 캠페인

대시민 상담 활동

동물 관련 고충상담 및 해결방안 안내

NGO연대활동

동물보호법개정추진위원회,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국제협력

세계동물보호협회(WSPA)
영국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ACFA(아시아 농장동물단체연합)
Greyhound Action International
IDA 등과 동물복지 협력



글_윤정임·사진_손혜원

건설현장에 묶여 삼으로 눈을 찌히는 학대를 받았던 진돗개 메리...
이 늠름어내는 외모적 포스는 보는 이로 하여금 움찔 무서움이 일게 하네요.
사실은 무지무지 겁이 많고 순한 미스윙크 메리랍니다.



건설현장에서 구조되어 행당동사무실에서 보호받던 메리는 큰개의 보호가
여의치 않았던 행당동의 사정으로 오산보호소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곳
에서 몇 년을 지낸 메리는 오산보호소 소장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다시 안
성보호소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행당동으로 돌아온 메리, 이
제는 절대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을게 약속하고 하루하루 밝아지고 예뻐졌
답니다.



구조식 후 메리 모습

요런 메리를 한눈에 알아 본 것은 사무실로 입양을 알아보러 오신 조현호님과 막내딸 연경양.

어린소녀의 눈엔 처음 보는 메리의 모습이 무서웠을 법도 한데 어쩔 보이지
않는 어떤 끈이 연경양과 메리에게 연결되어 있었을지도 모르죠..
너무나 많은 시간 서로를 모르고 있었지만 운명처럼 드라마틱한 만남을 가
진 후 메리는 연경양 가족들과 새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선 부르면 오는 정도의 상큼함만 보여주던 메리는 이제 연경양의
곁따지가 되어 부르지 않아도 척척 안기는 애교쟁이에 아침엔 학교까지 따
라가려고 앞장서는 패쟁이에 마당을 어질러놓는 만행까지 서슴없이 저지
르며 신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만병통치약입니다.
메리의 표정을 보세요.
이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밝아질 메리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절로 신이 납니다.

사랑하는 메리야~
메리와 메리네 가족 모두가 늘 행복하고 건강하길 기도한다.
돌고 돌고 돌아 드디어 만난 소중한 인연이 변치 않고
계속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메리네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



이름표는 생명줄입니다.



우리 개는 절대로 혼자서는 외출하지 않는다고 믿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 고양이 등은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아주 조금 열린 문틈 사이로 가족들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혹은 집안에 손님들이 드나들 때 정신없는 틈을 타 빠져나가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정 내에 있을 때에도 이름표는 항상 달아주셔야 합니다. 실 예로 명절이나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는 봄, 여름에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구조 단계에 입소하는 동물들도 늘어납니다.

서울시의 경우만 하여도 2007년에 공식적으로 구조된 반려동물이 약 12,000여 마리가 됩니다. 이 동물들은 극소수만이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가고, 절대다수가 입양되지 못하고 안락사되거나 질병에 의해 병사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는 반려 동물들도 있습니다. 집안에서만 살던 반려 동물들은 밖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여, 극심한 공포와 굶주림으로 길에서 떠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로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가기도 하며, 피부병이 걸릴 경우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피부에서 진물과 피가 나도록 긁는 고통을 받으며 사람들의 외면 속에 떠돌아다니다가 서서히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 외 많은 질병과 때론 영역 다툼에 의해 무참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때론 사람들에게 붙잡혀 잡아먹히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기도 합니다.

동물구조단체에 들어오는 개 중에는 집에서 나온 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은 듯한 단정한 상태의 동물들도 많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정성스런 돌봄을 받은 개들이라는 것이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연락처가 적혀 있는 이름표만 달고 있었어도 쉽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큼니다.

우리 단체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시설공사 중 일 때에 보호 중이던 개가 두 번을 가출한 경험이 있었는데 두 번 다 이름표 때문에 연락을 받고 개를 찾았습니다. 또는 입양 보낼 때에는 반드시 이름표를 걸어주고 보내는데, 입양 간 반려동물이 새 가정에 적응이 안 되어 가출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름표 덕분에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연락처를 적은 이름표는 생명줄이 되기도 합니다. ☺

지금 곧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알아
두세요

2008년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의해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고 외출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입양 해 주 세 요 ■



착한 시추

강이의 가족 찾기

윤정임 | 한국동물복지협회 선임간사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에 고급 승용차 한대가 오더니 여자와 개가 함께 내렸습니다. 잠시 걸던 여자는 차에 혼자 타고 오직 개만이 도로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차가 뚱~하고 떠나갑니다. 우연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혼신을 다해 쫓아가며 차를 세우려 합니다. "어보세요! 어보세요! 개가 안났어요!" 남겨진 개도 있는 힘껏 쫓아갔지만 무정한 그녀는 그냥 그렇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황량한 겨울 시골밭판에 그렇게 버려진 강이는 깨끗하게 미용되어져 추위를 이길 털마저도 없었습니다. 늘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강이는 마음을 주는 듯 하다가도 어느새 한 발짝 물러서고, 다른 아이를 예뻐해도 물고래미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사랑 따윈 관심 없어.

변하는게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이는 어쩔 그때 버려진 상처를 기억하고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2년을 있는 듯 없는 듯 지냈던 강이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젠 사랑 받고 싶은기뻐요. 예뻐해 달라고 막 때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보면 발밑에서 뱅글뱅글 돌기도 하며 왕왕 짖으면서 자기를 봐달라고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누워있으면 옆구리를 파고들어 팔베개를 해달라고 손으로 긁어요. 그리고 맛있는거 달라고 간사들의 팔위에 얼굴을 톡하니 올려놓는 애교까지 보인답니다. 강이의 놀라운 변신에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순하고 욕심 없는 강이의 또 다른 별명은 '꼬질이 강이', '꼬랑내만땅 강이'랍니다.

절대 다른 강아지를 먼저 건드리는 법이 없고 모든 걸 양보하는 착한 강이의 가족이 되신다면 매일매일 구수한 냄새에 푹신하고 말랑말랑한 강이와 꿈나라를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이름 : 강이
나이 : 6개월
성별 : 수컷(중성화済み)
체중 : 5kg가량
전화 : 02-2292-6337
yjim@animals.or.kr



“아파트에서 개를 못키우게 해요”

간혹 사무실로 전화해서 아파트에서 개를 못 키우게 하는데 이를 어찌해야 하느냐는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아파트에서는 개를 키우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적잖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현행법 그 어느 곳에도 아파트에서 개를 못 키우게 할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축 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을 두고 '개 양육 금지법'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죠. 또 이로 인해 우리의 반려동물이 퇴출 위기에 놓인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 되겠죠?

*** 아래는 간설교통부로 받은 질의회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애견 등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견 등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개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될 때만이 피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이 아파트에서 개 키우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듯, 그렇다고 해서 개 양육자들의 책임이 전

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개를 양육할 때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가장 우선시되어야겠죠? 나로 인하여 이웃의 불편함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애견문화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개의 헛짓을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짖음이 심한 개는 반복 교육 또는 짖음 방지 목걸이를 사용하여서라도 이웃 간의 소음 분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해요. 짖음 방지를 위한 목걸이를 착용시키는 것은 개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함께 살기 시작한 개를 길거리로 내쫓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일 수밖에 없겠죠?

개와 함께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줄로 묶어서 외출해야 해요.

개 줄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개조차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안도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산책할 때 개의 배설물 수거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간혹 배설물을 그냥 남겨두고 오거나 아파트 화단에 살짝 던져버리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절대 안돼요! 길거리에서 우리 건공들의 흔적은 아름다운 기억만 남겨주자고요. ☺



삼색이에 대한 기억과 서울시의 고양이 TNR정책

우리 사무실에도 밥 손님 고양이들이 있다. 첫 번째의 것이 기억에 오래 남듯 우리의 첫 밥 손님은 세 가지 색깔의 털을 입은 삼색 고양이였다. 삼색고양이가 나타날 즈음에 사무실 가족들도 늘어 이 고양이에게 밥 주는 일도 시작되었다. 이름도 지어주었다. 삼색이라고, 몸집이 자그마한 삼색이는 걸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암컷이었다. 사무실로 찾아오는 1호 밥 손님 삼색이, 지금 삼색이는 아들 하나 딸령 남긴 채 우리의 곁을 떠났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삼색이를 사지로 몰아 넣은 것인지도 모른다.

대략 3년 정도를 들락날락하던 삼색이는 배가 부른 상태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사무실 식구들은 배부른 삼색이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 커졌다. 아가에게 물렸던 적이 다 가라앉기도 전에 발정이 온다는 고양이들, 고양이를 굶지 않게 보는 이 도심가의 인심이, 계속 태어나는 고양이들을 더욱 사지로 몰아 넣기 때문이다.

사무실 가족들은 삼색이를 집아서 불임수술을 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삼색이는 어찌나 영리한지 우리에게 잡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간사들은 고생 끝에 삼색이를 간신히 잡아내었다. 우리는 쾌거를 이룬 듯 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을 시키고 왔다. 이제 수술만 하면 삼색이의 출산고생은 이걸로 끝났고, 우리가 열심히 밥 대주며 아들과 알콩달콩 잘 살으라고 할 작정이었다. 허나 그런 이상은 잠시였다. 병원 부주위로 삼색이가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다. 몇날 며칠을 박언주간사와 고양이전문 탐정이 병원 주위를 탐색해 삼색이를 다시 잡았다. 정말이지 이걸로 안도의 큰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은 뭐 없

겠지 싶었다. 하지만 수술 며칠 후 삼색이는 죽었다. 사무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고양이 TNR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고양이 TNR사업을 시행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고무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TNR 시행 과정으로 인해 일부 애묘인들 사이에선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형식적인 TNR은 예산 낭비와 더불어 대다수의 고양이들에겐 참혹한 결과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TNR정책은 정책 시행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실행의 시스템화가 잘 갖춰지지 못한 채, 사업수행자 선정을 놓고 약간의 진통만 겪었을 뿐(그것도 수행하고자 하는 당사자들만)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물론 서울시가 TNR에 예산을 책정하고 이 제도를 실행하려는 의지는 격려하고 싶다. 하지만 TNR이 고양이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사업 의도가 제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이 시행에 대해 이익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다음 호엔 서울시의 TNR 실행 과정과 중간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양이를 포획해서 불임수술을 하고 재방사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고양이가 공존하기 위한 합의의 방안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이해 관계나 특정 이기주의로 인식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자제되어야 한다. 동물 보다 사람이 더 시끄러워서는 안된다. ☺

사진으로 보는 농장동물



울산 신우목장의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풍경이다.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육골분이 섞인 사료를 먹임으로부터 원인을 찾게 된다.
그렇게 사육된 소가 정상적인 것이라 생각했다니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극에 달해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지난한 삶이다.
동물 고유의 특성은 무시되고, 오로지 생산성에 의해 삶의 여건이 결정된다.
그나마 한우는 돼지나 닭 등에 비해서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사례가 많은 편이다.

동물복지는 한가로운 이들의 사치로운 주장이 아니다.
육식을 하는 인간의 건강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동물들이 행복할때 인간도 행복하다는 어느 노교수의 역설이, 흠뻑되어
우리 사회와 농장 곳곳에 날아들기를 바란다. ㉠

조희경 | 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공장화된 사육환경 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1. 가축사육의 과정과 환경에 관심을 갖고 개선 가능성을 이해한다.
2. 정부와 입법자들에게 농장동물복지 정책 마련을 요구한다.
3. 동물복지형 축산물 구입에 적극적인 표현을 한다.



1. 한우
비좁은 공간에서 칸칸이 채워진 한우들.
첫번째 칸에 있는 소의 표정에서 무효한 일상이 읽혀진다.
2. 돼지
밀집사육되고 있는 돼지들. 휴식공간과 배변 공간이 구분이
안되어 돼지의 몸이 오물로 뒤범벅이다.
3. 닭
폭 50Cm의 공간에 4마리의 암탉이 채워져 사육된다.
날개짓조차 할 수 없는 공간.
무심코 먹는 달걀에 암탉의 비애가 서려있다.

BSE(광우병)의 예방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대항

박연주 | 한국동물복지협회 선임간사



© Compassion over killing

대한민국을 강타한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일반 시민들이 참여로 계속 확산되어가자, 일부 정부기관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광우병은 이제 사라져가는 질병이라는 지극히 단순화된 논리로써 광우병의 피해와 위험을 애써 축소시키려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사람들의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만 반증하여 줄 뿐이다. 왜냐하면, 불행히도 이러한 결론을 성급히 내리기에 충분한 광우병 연구 자료를 우리는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며, 광우병의 정확한 원인과 전파경로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한 해답이 현재 나와 있지 않다. 그저 예방이 최선이라는 원칙하에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무엇보다 광우병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1985년 광우병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후, 영국 내에서도 광우병의 원인과 이것이 인간에게까지 미칠 파장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었다. 소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1980년생부터 광우병 증세를 보이는 소의 숫자가 100마리를 넘어서기 시작하였

다. 이 숫자는 5년 만에 1만 단위를 넘어서 1987년생 소에선 무려 37,477마리에 달하였다. 광우병의 발생 건수가 10년도 안된 사이에 300배를 넘어선 것이다. 영국 정부 관계자 대다수 역시 광우병 발생 초기에 그것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리 없다는 주장을 계속 고수하였다. 그러나 육골분 사료가 주요 발병인자라는 근거가 발견되어 1988년부터 1990년까지 1차적으로 반추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였다.

유럽, 혹독한 경험 후에 얻은 것

그리고 급기야 인간 광우병과 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1990년부터는 모든 동물에게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동물성 사료 공급을 금지시키게 되었다. 이후 광우병 증세를 보이는 소의 수는 천 단위로 대폭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많았다. 마침내 1996년부터는 광우병 위험물질만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사료 자체를 금지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연합과 일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 모든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일절 금지시키고 난 후에야 광우병



© The FGS

발생 케이스는 대폭 줄어들었는데 2004년생 소부터는 한 건의 광우병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어 영국 정부는 2000년 이후 광우병 연구에만 3천만 파운드 이상의 예산을 분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잠복기에 있는 것인지, 언제 또 다른 형태로 다시 발생할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만이 질병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다.

‘소는 이중으로 억울하다’

아직 명쾌하게 광우병의 발생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추동물인 소에게 다른 동물의 사체, 도축 처리 후 나온 찌꺼기 등이 주재료인 육골분 사료를 먹여온 산업 축산의 관행이 광우병 발생에 있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전국민에게 ‘미친소’는 엄청난 공포와 저주의 대상처럼 되었지만, 소는 스스로 미친 것이 아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는 미친 것이 아니라 육신이 병든 것이며, 공장식 대량 사육의 최전선에서 혹독하게 당한 피해자인 것이다.

무엇이 소를 병들어 죽게까지 했는가?
자연의 섭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간의 목적 때문이다. 무엇보다 동물복지의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충족 조건인 동물의 타고난 본성을 발달한 결과이다. 이것은 동물들을 고통에 시달리다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인간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예방이 최선

인간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안전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고려할 때 우리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과 동물성 식품의 소비는 계속 증가해왔고 이에 해당하는 식품안전문제 중 상당수는 비정상적인 사육환경과 그로부터 동물이 받고 있는 고통에 기인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우리는 광우병과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없다.

우리가 유독 미국산 쇠고기를 문제 삼는 이유는 딱 게 아니다. 미국식 대형 축산 시스템이 그만큼 많

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는 숫자만으로도 약 1억 마리로 영국의 10배에 이르며, 육골분 사료 생산량도 약 360톤으로 영국의 10배가 넘는다. 매년 10만 마리의 보행불능 소가 죽은 후 육골분 사료로 가공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은 이미 낮은 감염 수준에서 토착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든 20개월 미만의 소라고 해서 특별히 더 안전한 것이라 단정할 수도 있

을까.

윤리적 소비 운동

미국축산협회는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 후 한국 내 쇠고기 시장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멕시코와 일본을 제치고 미국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대다수 소비자들에게 육류 소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전히 가격인 만큼,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대량 유입은 국산 쇠고기 공급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량 공세에 무엇으로 맞설 수 있을까?

무엇보다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심신이 건강해야 한다.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채 사육된 동물은 살덩이 자체일 뿐, 건강한 축산물을 공급해줄 수 없다. 때문에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사육 환경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을 통해서도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우리는 안전성의 의심되는 식품의 무제한적 수입을 거부할 근거를 스스로 세우지 못했다. 도축 이후의 가공처리과정에만 집중되어 있는 국내 식품안전 관리는 사육 단계가 주 초점이 되어야 한다. 엄격한 국내 생산 기준은 무역의 전제조건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

거의 무제한으로 풀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이, 인도적으로 사육된 동물을 구입하는 ‘윤리적 소비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염원한다. ㉔

▶ Reference

- 리처드 로즈, 「죽음의 형식」, 메디컬사이언스 (2009)
-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Medical Research Council of the United Kingdom, 'UK strateg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n human and animal health aspects of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2005-2008)
- Advisory Committee on Dangerous Pathogens, 'BSE-Occupational guidance', (2008)
-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행회의 자료집」, (2008)

생명에 경중이 있을까요?

최현숙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편집국장



요즘은 그나마 보던 TV를 끊었다.

신문 기자라는 직업상 저녁 8시 혹은 9시 뉴스는 의무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봐왔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시간이 되면 아예 보던 TV도 끈다.

화면 가득히 밀려오는 팡우병 소와 AI 닭을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죽기 전까지는 절대 늙지 않는다는 소가 무릎 꿇고 허우적거리거나 산 닭과 오리들이 루대에 마구 달려들며 생매장 당하는 모습은 अभी 규한 생지옥이라는 말 그 자체로 느껴졌다.

나에게는 이러한 모든 장면이 너무 끔찍했고 그런 상황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부딪침을 극구 피하고 있었지만, 한국에 살면서, 매스컴에 종사하면서 상황을 모두 피해가지는 못했다.

신문을 읽다 부딪치게 된 한 오리의 모습. 커다란 루대 자루에 너무 많은 오리를 담아 댄 위에 담긴 한 마리의 머리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큰 눈에 공포를 가득 담고 상황을 이해 못해 다소 어리둥절한 모습의 오리 얼굴이 가슴에 꽂혔다.

그 오리의 일생은 어땠을까?

농장 오리니까 아마 어미도 모른 채 부화장에서 눈부신 불빛을 바라보며 세상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 다음 걸음마를 할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는 '닭장' 같은 '오리장'에서 언뜻 보면 나와 내가 구분도 되지 않은 운명공동체 오리들과 이리 저리 몸을 부대끼며 하루하루를 견뎌온 것이다. 오리가 살던 농장은 짐작이 갔다. 정형화된 사육장 안에서 푸른 하늘과 초록빛 평원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도 못한 채, 무료하고 지난한 삶을 그렇게 덤덤하게 살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렇게나 자루에 담겨져서 땅에 묻히기 전, 누군가의 실수로 열린 자루 속에서 난생 처음 파란 하늘을 바라봤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숨이 켜져 오는 고통에 잠시 몸을 떨다가 희뿌연 눈을 감았을 것이다.





중국 한나라 때 법관 장탕(張湯)의 어린 시절 이야기이다.

외출하고 온 그의 부친은 집에서 보관 중이던 고기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부친은 장탕이 한 짓이라고 생각하며 장탕을 꾸짖고 회초리로 때렸다. 억울하게 매를 맞은 장탕은 부친이 보는 앞에서 쥐구멍을 파헤쳐 숨어 있던 쥐를 끌어내고, 쥐가 먹다 남긴 고기도 증거물로 '압수'했다. 장탕은 마당 한구석에 쥐와 증거물인 고기를 놓고 재판을 열었다. 판결문을 낭독한 후 쥐를 뭉뚱이를 찢어버리는 책형에 처했다. 부친은 그런 장탕의 행동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다. 어린아이가 제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더구나 장탕의 판결문은 더욱 놀라웠다. 어린아이가 쓴 판결문인데도 나름대로 조목조목 따져가며 완벽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후 장탕은 훌륭한 관리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어쨌거나 그 쥐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이다. 당시 쥐는 재판을 받아 처형을 당했다. 비록 인간의 잣대에 죽음을 당하긴 했지만, 그 쥐는 죽음이라는 절차와 당위성을 따져서 목숨을 잃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탕의 쥐는 기본 권리는 보장을 받았던 셈이다.

인간의 권익은 옛날에 비해 말할 수 없이 높아졌지만, 동물의 권익은 말할 수 없이 초라해졌다. 인간의 권익이 높아져서 동물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추락한 것일까? 아니면 인간의 권익과 동물의 권익은 반비례 관계만이 성립하는 것인가? 쏟아지는 동물들의 생매장 소식 앞에서 이런 질문을 떠올릴 때마다 하루하루 그저 갑갑하고 무력해지기만 하다.

올해 AI가 전국을 휩쓸었던 때, 당국은 AI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8,138,000마리라는 엄청난 수의 닭과 오리들을 생매장했다. 생산성 극대화의 원칙으로 불건 쪼개내듯 하며 사육되는 동물들이 질병에 취약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듯 동물의 생애를 철저히 무시하고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공장식 축산의 폐해는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와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등의 질병을 안겨주었다.

생명의 무게에는 경중이 없다.

나는 무고한 동물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 동물들의 죽음이 더 이상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조류독감이다, 광우병이다'라며 마스크가 들쭉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발병한 동물들을 죽이기에 바쁘다. 하지만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이것은 막대한 손실을 유발한다. 다양한 먹이사슬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동물들이 받는 고통은 인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서라도,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당장 개선해야 한다. ㉔



까다롭지 않은 채식

이경숙 | 상정한의원 부원장



우리는 고기를 얻기 위해 오늘도 동물을 사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육류를 얻기 위한 동물 사육에서 빚어지는 결과는 열대우림 파괴, 지구 온난화 현상, 수질오염, 물 부족 현상, 에너지 자원오용, 세계의 기아 등등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생태계와 환경,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요.

그 어느 때보다 채식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인데요.

저는 채식한 지 5년이 되어 갑니다. 채식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몇 년 전부터 한국동물복지협회(동물자유연대)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생명존중을 입으로만 외치기 싫어서였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잔병치레도 거의 없고 운동모임에서도 제일 지치지 않는 강철체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느끼기에도 몸이 늘 가볍고 매일이 상쾌한 느낌입니다. 가끔 채식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건강상태가 과연 이렇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채식은 생각 외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 바쁘다 보니 함께 모여 밥 먹는 시간이 잘 없어 아침 식사만큼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침은 주로 제철에 나는 싱싱한 채소와 두부, 과일 위주로 반찬을 만들고 멸치나 다시마 새우 등을 뿔아서 만든 천연조미료를 씁니다. 또 잡곡밥을 추가합니다. 아직 가족들이 완전한 채식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집에서 만드는 플레인요거트와 삶은 달걀은 가끔씩 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닭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자연방사한 유정란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집 아침상을 몇 가지 올려 봅니다. ㅎ



아, 콩 낱은 찹쌀밥은
사전에 삶아주세요.
1000cc 우유 하나에 요거트 한 병을
잘 섞어서 요거트 만드는 데 넣어서
아름 시간 정도 걸려 만들어진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아주 달콤한 맛이지요.

▼ 늦은 시간에 간 마트에서 비싼
아스파라거스를 반값에 샀어요.
보통 양식 요리를 보면 아스파라거스에
버터를 돌려 익히는데 느끼한게 싫어
그냥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과
아일랜드소스에 콕콕 찍어 냈답니다...



▼ 도토리묵, 돈나물, 미나리, 오이에는 양념장을 뿌려 먹고 사과와 바나나,
오렌지에는 집에서 만든 요거트를 드레싱으로 뿌려 먹습니다.
살은 콩을 갈아넣어 묵은 감자와 함께 싱싱하게 끓인 우거지도 보이네요.



적수로 밥과 배근에 할 수 있는 장아찌!

▶ 대가오이, 아삭이고추, 양파, 명초를 씻어 놓고,
진간장, 식초, 설탕을 같이 넣고 팔팔 끓여서(비율은
그냥 내 입에 맞으면 OK) 준비된 채소에 부어서
식으면 바로 냉장고에 넣습니다.
냉장고에서 삼사일만 지나도 새콤달콤하니 맛있습니다.
매년 오이도 몇 접씩, 양파도 몇 주머니씩 사서
만들어 이웃에 보시 많이 합니다.
파프리카와 브로콜리도 같이 넣어 보았는데 맛있네요.
간이 다 배고 나면 간장만 다시 팔팔 끓여서 헹궈
했는데 안 짜고 좋아요.



핵심정리! 동물보호법

1991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낯이 성숙해 가는 우리사회의 시민 의식은 동물을 학대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각계각층의 이러한 노력은 마침내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이 단지 동물보호를 '선언적 의미'로만 명시했다면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실효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동물보호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 한 첫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중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계된 법령을 추려보았다

"인식표 없으면 우리깎도 유기권?"

1.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 동물등록

-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소유한 사람은 소유자 주소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한다
- 위반 시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물 인식표 부착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개에게 부착한다
- 인식표 없이 돌아다니면 유기된 것으로 간주 함
- 위반 시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동물 소유자 의무사항

■ 동물 동반외출 시 :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즉시 수거

- 위반 시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물 유기금지 및 동물보호소 운영제도

- 동물유기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보호시설에서 7일 이상 공고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 군, 자치구에 속하게 됨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미 있는 첫 걸음이 장차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가
단계적으로 향상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동물학대를 목격하신 분들은 신고하세요”

3. 동물학대금지

- 동물학대의 유형 : 동물구타, 곰 쓸개 채취, 머리에 못 박힌 고양이, 개를 목매다는 행위
-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동물보호 감시관 제도

- 피학대 동물을 동물학대자로부터 격리, 동물보호 전문기관, 치료기관으로 인도한다
- 위반 시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들의 공포를 풀어내기 위하여”

5. 동물실험 및 윤리위원회 제도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설치대상 실험실은
3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 1/3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함
- 외부위원 중 1인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추천한자로 함
- 위반 시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동물판매업 제도

-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자치구청장에 등록해야 함
- 위반 시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보호법 알리기 캠페인



1월 12, 19일 명동과 성남모란시장에서 애견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알리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애견판매업자에게는 동물판매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는 점을 알리고, 일반인에게는 동물학대 금지 조항과 위반시 처벌내용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벌금이 있어서인지 생각보다 상인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회원 최현미님, 이해영님, 김지은학생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번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발판삼아 소중한 생명들이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점차 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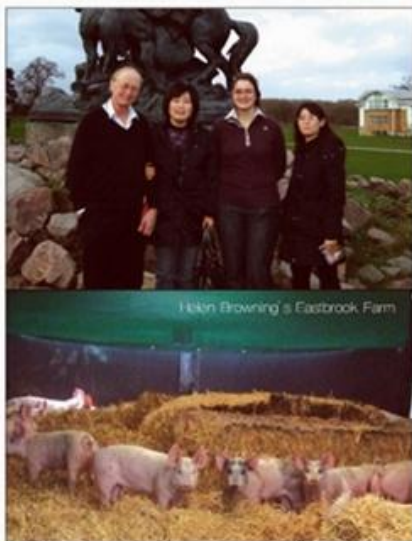
1월 25~27일 국립수의과학연구원 주제로 동물보호법 알리기 캠페인에 동물자유연대가 함께 하였습니다. 충무로, 과천경마장 등 지하철역에서 전단지등을 배포했는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무관심한 사람들 속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 [포럼] 동물보호법이 개식용에 미치는 영향과 개식용 반대 캠페인 발전을 위한 모색



1월 16일 외교센터 세미나실에서 한국동물복지협회 주관 하에『동물보호법이 개식용에 미치는 영향과 개식용 반대 캠페인 발전을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개식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긍정적/부정적)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동물단체의 개 식용금지 캠페인 재점검 및 발전적 방안 모색을 통하여 '개'가 반려동물로 정착되는 데에 발전적 역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이날의 뜨거웠던 현장의 동영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영국 동물복지형 농장 탐방



지난 1월 말 조희경 대표님과 박연주간사님이 영국의 동물복지형 농장 탐방을 하였습니다. 영국의 농장동물 복지 관련 조사도 하고, 동물복지를 연구하는 Royal Veterinary College를 방문하는 설 특유의 일정이었습니니다. 이곳에서는 도살장의 소들이 최대한 편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수의학계에서도 협력해주기를 바래보았습니다

■ 총회



2월 20일 동물자유연대 회의실에서 2008년 정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2007년 1년 동안의 총 사업 보고와 2008년 사업 계획, 그리고 작년 결산 보고 및 올해의 예산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뜻 깊은 시간이었지만, 더 많은 회원님을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모든 분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동물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개고기 합법화 반대 캠페인



3월 말 서울시의 갑작스런 개고기 합법화 움직임에 대하여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즉각 싸이월드를 통한 반대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하여 동물단체와 연합하여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대표님이 직접 공성전 국회의원실과 서울시 실무자 등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개고기 합법화 추진은 철회하겠다고 하였으나, 위생검사는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지구의날 행사



4월 20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지구의 날 행사에서 동물자유연대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농장동물이 처한 현실과 개고기 식용에 관한 사진을 전시하고 우리의 뜻을 전하는 팸플릿을 배포하였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서울시 개고기 합법화를 반대하는 어린이들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 입양동물의날 행사

5월 25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입양동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윤정임간사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간단한 게임으로 진행되었는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열심히 뛰어주셨습니다.



■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동물자유연대가 촛불문화제에 참여하였습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는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단체에서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된 '국민대책위원회'에 우리단체에서는 이자영간사를 주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들
**국내 최대의
 반려동물 장례식장**

**아
 룡
 이
 천
 국**

반려동물은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며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의 시간... 더 이상 몰래 숨어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정식 등록된 반려동물장례업체 아롱이천국에서 편안히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국내 동물장묘업 등록 제1호로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장례업을 시작한 아롱이 천국은
 넓고 편안한 전용 장례식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나 정성을 다해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롱이천국은

- 반려동물 사망 시 직접 아롱이 천국을 방문하시거나 아롱이천국의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장례진행 전 과정을 모두 지켜 보실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전용 화장로에서 깨끗하고 경건하게 화장됩니다.
- 반려동물의 유골은 분골 후 데려가시거나 전용 납골당(본 건물2층)에 안치 하실 수 있습니다.
- 납골당은 아롱이천국 영업시간에 언제든지 방문 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가
소개

편집후기

'함께 나누는 삶'은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정보지입니다.
옛부터 동물과 사람은 별래야 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제는 동물을 이용만 하던 관계에서 벗어나
상부상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 돌릴 수 있는 데
이 책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제작하는 것이라 자료를 모으고, 편집해서
책으로 나오기까지 많은 착오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발행에 의의를 두고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흡족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첫 시행의 부족함을 채워서 다음호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마치는 이 순간 이 글이 있기까지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함께 고생해 주신 분들이 생각납니다.
일일이 열거 할 순 없지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 볼 때까지 '함께 나누는 삶'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지영권사

회원여러분 반갑습니다.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사)한국동물복지협회의 막내
이지영 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해볼까 합
니다.

저는 박연주 간사님과 함께 농장동물 파트를
맡고 있으며 닭, 그 중에서도 '산란계' 즉 알
 낳는 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듯이, 공장에서 밀집 사육
되고 있는 닭들은 본능적인 행위도 제한된 열
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에서는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데
요.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다량의 영양
제, 항생제들은 결국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동물의 복지를 무시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던 고병
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이런 열악한 사육환
경이 심각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하였습니다.
동물 복지 개선은 동물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환경과 인류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저의 주된 업무이고 그 밖
에 기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답니다. 사무실에 놀러
오시면 2층 구석에서 열심
히 일하고 있는 저를 만나
실 수 있을 거예요! ☺



함께
나누는 삶



후원해 주세요

동물들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자연의 어우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은 인간 삶의 질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하기도 하고, 많은 수의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해 희생되기도 합니다. 정서가 메마른 현대 사회에서는 인생의 동반자로, 인간의 식생활과 생활용품, 오락, 의학, 과학 개발의 현장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곳에서 동물들이 이용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동물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때론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합리화되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에는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인간은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의무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고통을 호소하며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하는 동물들의 절규, 끝 간데 없는 동물 이용. 우리는 동물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충만한 가치 사회를 구현해나가는 일, 여러분들의 동참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부당한 처우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위해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사)한국동물복지협회의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방법

- 이 면을 작성하여 절취하신 후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 <http://animals.or.kr>로 접속하셔서 정회원에 가입하시면 후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화 02-2292-6337, 팩스번호 02-2292-6339 (전송 후 확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이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휴대폰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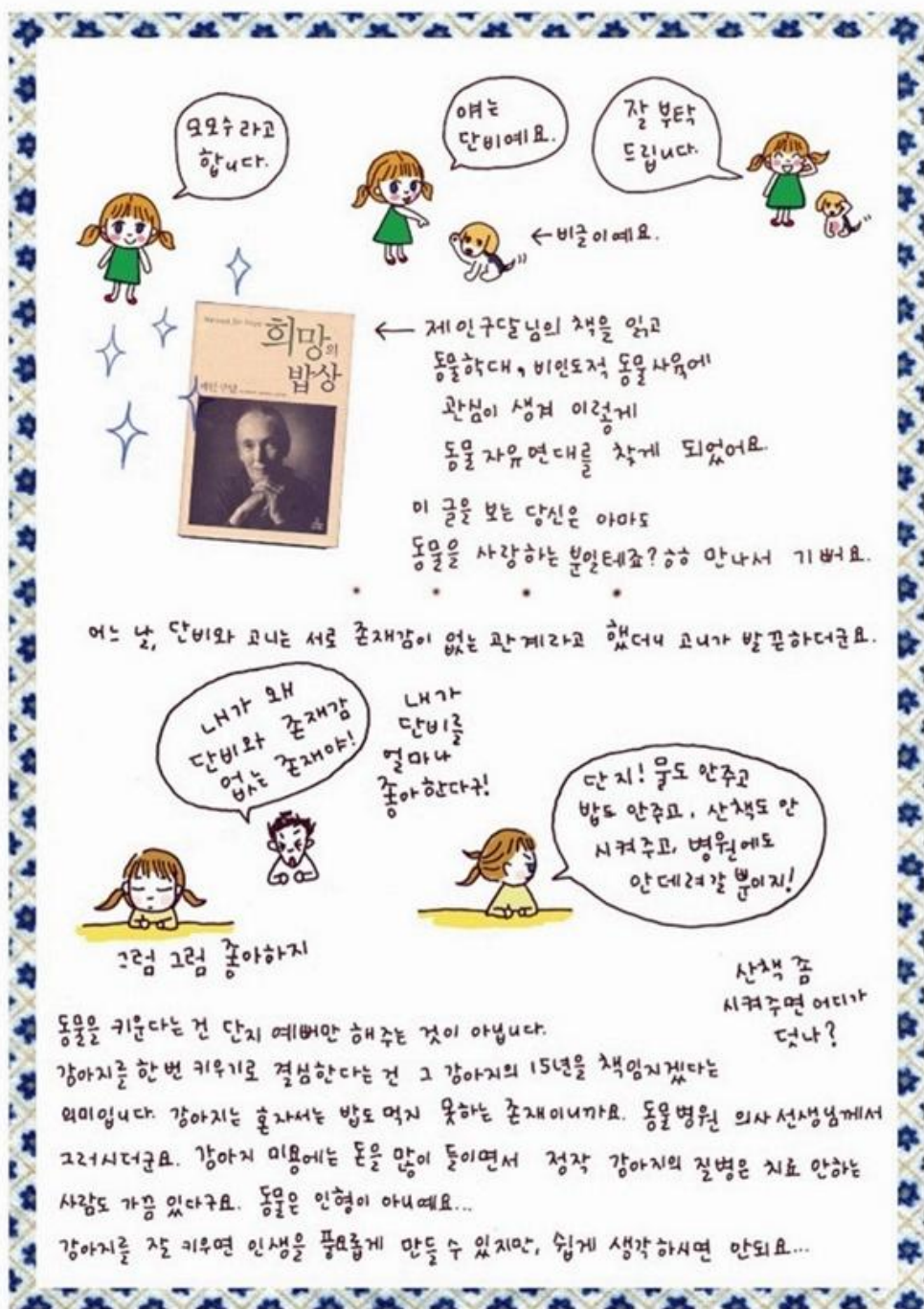
주소 _____ 전 화 (집/회사) _____

자동이체계좌번호 _____ 은행명 _____ 예금주 _____

* 예금주와 후원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기재 _____

후원금액 _____ 자동이체 날짜 _____ 5일 ☐ 14일 ☐ 23일 ☐ (확인 요망)

* 우리단체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소독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모수라는 필명을 가진 김지영님은 캐릭터 일러스트와 만화를 그리는 분입니다. 대표작으로 '마법수프'가 있으며 비글클럽, 환경연합, 동물자유연대와 모모수 홈페이지에 환경 및 동물관련한 만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작품집으로 <모모수-작업실, 일러스트 그리고 강아지>와 <행이 뽀은 소녀>를 출간하였습니다. www.momosu.com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몫을 빼앗아 동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
소외된 약자에 대한 분배의 자비심입니다.